■민족문화연구 제95호(2022.5.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115-140.
http://doi.org/10.17948/kcs.2022..95.115

鄭允容의 『北路紀略』 硏究*

권은지(權恩志)**

목 차

1. 서론
2. 『北路紀略』의 구성과 내용
3. 『北路紀略』의 서술적 특성
4. 결론

국문초록

鄭允容(1792-1865)은 『字類註釋』의 작자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여러 저술을 남겼음에도 『자류주석』 외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본 논문은 정윤용의 여러 저술 가운데 『北路紀略』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과 내용을 살피고 이를 토대로 『북로기략』의 서술적 특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北路紀略』은 정윤용이 그의 사촌 형인 정원용을 따라 1829-1830년 함경도 지방으로 갔을 때 이곳을 돌아보고 지은 저술이다. 그동안 『북로기략』은 북방 관련 풍부한 자료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차례 중요한 북방 관련 자료로 언급되는 등 그 중요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B5A17048145)..
** 고려대 한문학과 강사.

성은 일찍부터 지적되어왔다. 그러나 한 차례의 연구 성과가 나온 이후로 40여 년간 이에 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고는 이에 문제의식을 느끼고『북로기략』연구에 관한 기초작업으로 우선『북로기략』의 구성과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북로기략』의 서술적 특성을 1) 함경도 지역에 대한 인식 提高 2)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자신의 견해 표출 3) 北方의 변화된 實狀 기록 세 가지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북로기략』에는 백두산 지변의 지형, 大澤의 원류, 백두산 정계비를 비롯하여 함경도 지방의 전반적인 정보, 豐沛之鄕으로서의 함경도의 위상을 보여주는 태조와 선대들의 사적과 유적, 북방 지역 주변 민족에 대한 내용, 임진왜란 때 함경도 지역의 의병 활동, 이 지역의 특성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북로기략』은 다른 북방 관련 저술과 비교하면 그 양과 내용이 풍부하여 조선 후기 북방 관련 저술 가운데에서도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北路紀略』, 鄭允容, 景執, 睡庵, 咸鏡道.

1. 서론

鄭允容(1792-1865)은『字類註釋』의 작자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여러 저술을 남겼음에도『자류주석』외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본 논문은 정윤용의 저술 가운데『北路紀略』을 중심으로 구성과 내용을 살피고, 이를 토대로『북로기략』의 서술적 특성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윤용은 鄭東逸의 아들로 자는 景執, 호는 睡庵이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의었고 1819년에 생원시에 합격하였는데 다음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어 이후로 벼슬에 나아갈 생각을 그만두어 젊은 시절에는 한동안 벼슬하지 않았다.[1] 정윤용은 어린 시절부터 특히 그의 사촌 형인 鄭元容(1783-1873)과 친밀하게 지내어 젊은 시절 정원용이 지방관으로 부임하게 되면 그를 따라 부

1) 정원용,『經山集』, 卷17,「從弟工曹參議允容墓誌銘」,“己卯上庠, 以幼歲違慈顔, 爲終身隱痛, 每當諱日, 哀毁如袒括時. 及孤露息念榮進, 築屋溫陽之南谷, 若將終焉.” 1831년(순조 31) 의릉참봉에 제수되었다. 1845년(헌종 14) 領敦寧 洪在龍의 추천으로 密陽府使를 거쳐 여러 지방관을 역임하다가 1850년(철종 1)에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였다. 1865년(고종 2) 영의정 조두순의 추천으로 通政大夫에 가자되었으며 이어 工曹參議에 제수되었다가 곧 죽었다.

임지로 가서 지냈다. 1829년(순조 29) 정원용은 회령 부사에 제수되어 함경도로 가게 되었는데 정윤용도 정원용을 따라 함경도로 갔으며,[2] 이 시기 함경도에 있으며 이 지방을 둘러보고『북로기략』을 지은 것으로 보인다.

정윤용의 저술은『북로기략』외에도『思問編』46권,『從先錄』44권,『東萊家錄稿』20권,『家學編』6권,『睡庵漫錄』28권,『字類註釋』4권,『深衣攷證』2권,『北路紀略』4권 등이 있다고 하는데,[3] 이 중『東萊家錄稿』,『家學編』,『字類註釋』,『深衣攷證』,『北路紀略』이 현전한다.[4]『자류주석』의 경우에는 국어학 방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다양한 연구 성과가 있으며,『심의고증』과 관련한 연구도 최근에 이루어졌다.[5] 그러나『북로기략』의 경우 당시 함경도 지방에 관한 풍부한 자료를 담고 있어 중요한 자료임이 계속해서 지적되었음에도[6] 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북로기략』에 관한 연구 성과로는『북로기략』의 편찬자와 저작 시기를 고찰한 짧은 분량의 연구 성과 한 편과[7] 간략한 해제[8]가 있을 뿐이며, 편찬자와 저작 시기를 고찰한 연구 이후로 40여 년간 이에 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은 이에 문제의식을 느끼고『북로기략』연구에 관한 기초작업으로 우선『북로기략』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북로기략』의 서술적 특성

---

2) 정원용이 회령부사가 되었을 때 정윤용이 따라간 사실은 정원용이 쓴 정윤용의 묘지명과 회령부사 시절 정원용이 정윤용에게 준 편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경산집』, 卷17,「從弟工曹參議允容墓誌銘」, "余守朔北之會寧, 君匹馬從, 風夕雪曉, 得傑句相屬, 吟響與戍樓鼓角相雜."; 『經山北征錄』 卷 2,「書贈景集 幷小序」, "余宦跡遍四方, 景執喜從余遊. 己丑秋, 會寧之行, 又偕焉, 登臨嘯詠, 無不與同足, 以忘羈旅之愁(…)"

3) 정원용의 묘지명과 이건창의『明美堂集』, 卷17,「鄭睡菴先生事畧」참고.

4) 다만『심의고증』은 2권만 현전한다.

5) 윤호진, 박윤미,「정윤용의『심의고증』에 관한 연구」,『아시아민족조형학보』14, 아시아민족조형학회, 2014, 17-37면.

6) 강석화, 고승희에서 주요 자료로『북로기략』을 제시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번역한『북새기략, 북관기사, 북여요선』해제에서『북로기략』이 북방 지역에 대한 풍부하고 상세한 내용을 담은 저술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추후 번역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7) 장존무,「『북로기략(北路紀略)』의 작자와 저작시기」,『동방학지』18, 연세대 국학연구원, 1978, 229-231면.

8) 강석화,『조선 후기 함경도와 북방영토의식』에서『북관기사』,『북행수록』,『북로기략』를 비교하며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해제로는 韓國學中央硏究院,『藏書閣圖書韓國本解題. 2:地理類』,「北路紀略」이 있다.

을 고찰하고자 한다.

2. 『北路紀略』의 구성과 내용

구성과 내용을 살피기에 앞서 『북로기략』의 소장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북로기략』은 현재 규장각에 필사본 2종(奎11415; 古4790-35) 장서각에 필사본 1종(K2-4512) 아세아문화사에서 출판한 책 한 권이 존재한다. 규장각 소장 奎11415은 필사 연대가 불명확하고 古4790-35는 1931년에 필사된 것이다. 두 본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형식은 비슷하나 한 행에 들어가는 글자의 위치가 조금씩 다르다. 장서각 본은 판심에 李王職實錄編纂用紙라 인쇄되어 있고 원고지에 필사한 것이다. 장서각 본은 크기, 용지, 행자수 등이 다르지만 규장각 본과 같은 내용으로 규장각 소장본을 이왕직실록편찬소에서 간인하기 위해 이왕직실록편찬 용지에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9] 장서각 본은 필사하며 생긴 오자에 대해 줄을 긋고 수정한 부분도 보이는데, 규장각 본과 비교하면 여전히 중간에 오자가 존재하며 아예 내용을 빠뜨린 부분도 있는 등 자잘하게 잘못 필사된 부분이 많다. 아세아문화사에서 출판한 책은 규장각 소장본 가운데 奎11415 본을 저본으로 한 것인데, 「開市」 부분 한 장과 「同時諸義士」 부분 한 장이 빠진 채로 출판되었다. 이상을 통해 규장각 소장본이 선본이며,[10] 장서각본이나 출판된 책 모두 자잘한 잘못이 있으나 내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기에 모두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로기략』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 기존에 정리한 해제가 있으나 간략하고,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본 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북로기략』은 4卷 4冊으로 元亨利貞으로 구분되어있다. 함경도 관련 여러 문헌에서 내용을 발췌하여 기록하였으며, 저자의 의견을 부기하기도 하였다.

---

9) 장서각 본에 관한 서지사항은 韓國學中央硏究院, 「北路紀略」 해제, 2005, 194-197면 참고.
10) 본고에서 인용하는 『북로기략』도 모두 규장각 본을 따랐다.

卷數	제목	항목	내용
卷1 (元)	山川 總要[11]	白頭幹支	백두산의 주변 지형에 대해 세세하게 밝혔다. 邑誌와 地圖 여러 문헌을 참고하여 지도에 표시되지 않거나 읍지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지명의 명칭이 여럿인 경우도 밝혀 놓았다.
		大澤原流	豆漫江・鴨綠江・黑龍江의 원류에 대해 고증한 것으로 두만강의 경우 홍양호의『朔方記』가운데「白頭山考」의 白頭山圖와 金起泓 저작의「寬谷記」를 참고하였으며, 이를 통해 두만이라는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도 밝혔다.
		定界碑	정계비를 세울 당시의 전후 사정을 洪世泰의「柳下記」에서 인용하여 기록하였으며, 비를 세운 지점이 잘못되었으니 이를 바로잡을 것을 건의한 김진규의 上疏를 略記하였다.[12]
		中國 稱長白山	왕사정의『池北偶談』에 수록된 覺羅武穆訥이 장백산을 보고 돌아오는 여정을 자세히 적어 황제에게 올린 글을 略記하여, 중국이 말하는 장백산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밝히고자 했다.
		拾遺	山外와 山內로 나누어 앞서 기록하지 못한 백두산 주변 지형에 대해 보충하였다.
	關防	城池	변경 지역에 있었던 江邊行城과 慶興・慶原・會寧 등 함경도 지방의 邑城의 연혁과 길이・높이・위치 등을 기록하였다. 마지막에 축성과 관련된 중요한 논의를 기록하였다.
		鎭堡	함경도 각 부에 속한 鎭과 堡의 위치를 기록하였는데, 邊境과 內地, 故址에 차이가 있어 이를 삼단으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말미에 南關・北關・嶺西의 여러 邑鎭에 관한 주요 논의를 기록하였다.
		嶺路	함경도 각 부에 있는 嶺의 위치를 기록하였으며, 隣界・邑境・海邊의 삼단으로 나누어 嶺路가 맞닿아 있는 곳을 표시하였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嶺路와 관련된 중요한 논의를 기록하였다.[13]
		附錄	烽燧・海路・道里를 덧붙였다. 봉수는 李玄錫,「烽山建寺說」과 李光秀,『芝峯類說』,「兵制」를 참고하여 함경도 지역의 봉수 개수와 유래에 대해서 기록하였다. 海路에서는 해로의 길이를 기록하였으며, 道里는 京城東門에서부터 西水羅까지 거치게 되는 橋, 驛, 嶺 등 주요 地物 사이의 거리를 적고, 함경도 각 읍의 거리와 서울까지의 거리는 표로 기록하였다.
卷2 (亨)	聖蹟	龍興 舊蹟[14]	穆祖・翼祖・度祖・桓祖・太祖・正宗・太宗과 관련된 사적으로 태조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태조의 비범한 탄생부터 그와 관련된 신이한 이야기와 함께 나하추의 격퇴・왜구 토벌・등극 후 여진인의 귀화・국경확충・변방안정에 이르기까지의 공적을 기록하였다. 정종과 태종은 함흥에서 태어난 사실을 기록하였다.
		聖址	德源, 慶源, 慶興, 永興, 咸興, 文川, 安邊, 定平 등지의 왕조와 관련된 사적을 기록하였다.[15]
	州郡誌	함경도 25 군현에[16] 대해「東國輿地勝覽」이나「邑誌」의 형식을 따라 山川・里社・戶口	

		・田賦・穀總・祠院・古跡・故事・人物 등의 항목을 설정하여 기록하였는데, 산천 외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을 때만 기록하고 나머지 항목 대부분은 기록하지 않았다.[17] 마지막에 道內名勝 항목에서 咸興十景과 北關十景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藥泉集』의 「咸興十景圖記」・「北關十景圖記」의 내용을 적절히 간추려 기록한 것이다.	
卷3 (利)	故實[18]	肅愼氏	북쪽 지역이 대개 肅愼氏가 살던 옛 땅임을 설명하였다.
		州郡沿革	함경도 郡縣에 관해 고구려・신라・고려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연혁을 기록하였다. 뒤에 總錄을 덧붙여 고구려 시대, 신라 시대에 불렸던 옛 지명이 지금 함경도 어느 군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였다.
		拓邊	고려 시절 여진을 물리치고 변경을 넓힌 것을 기록하고, 따로 本朝 항목을 두어 조선에서 六鎭을 개척한 사정을 기록하였다.
		邊胡	女眞과 野人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總錄에서 귀화한 여진인에 대해 기록하였다. 藩胡諸部 항목을 두어 『制勝方略』에 의거해 여진 부락에 대해 대략 기록하였고, 교화되지 않아 물리친 사실은 『北關誌』와 여러 문헌에서 근거하여 종류에 따라 부기하였으며 이 가운데 老土部落・忽剌溫 등은 따로 항목을 두어 기록하였다.
		隣胡	達達・蒙古 등 북방 민족의 사정을 짤막하게 기록하고 공민왕 8년에 심양과 요동[遼瀋]의 2,300여 명의 유민들이 투항하여 西北郡에 나누어 살게 한 사정을 기록하였다.
		淸人始起	努爾哈赤[누르하치]이 忽剌溫과 여러 부족을 병합하여 청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것과 崇德 3년(1638) 회령에서의 개시 順治 2년(1645) 경원에서의 개시를 기록하였다. 또 청의 요청으로 군사를 보내어 러시아[羅先國]와 싸운 것을 「寬谷記」에서 인용하여 기록하였다. 부가 항목으로 江外雜記와 開市가 있는데 '강외잡기' 에서는 『朔方記』의 「江外記聞」, 「白頭山考」 등에서 인용하여 만주 지역에 대해 설명하였고, '개시'에서는 개시의 연원과 방법, 거래 물품 등에 대해 기록하였다.
		海寇 倭	임진왜란 때 왜구가 육로를 따라 함경도 지방으로 침입한 과정과 함경도 지방에서 의병 활동을 鄭文孚를 중심으로 기록하였고, 마지막에 경성의 彰烈祠에 배향된 인물 10명을 부기하였다.[19]
卷4 (貞)	同時諸義士	목차에는 부록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앞서 「同時諸義士」 항목이 있다. 여기서는 앞서 서술했던 鄭文孚 이외 彰烈祠에 배향된 9義士의 의병 활동에 대해 기록하였다. 이후로 의병의 활동과 왜란 시에 공이 있는 사람들의 출신 지방과 관련 활약을 기록하였으며, 會寧顯忠祠에 배향된 8의사의 활약도 기록하였다. 마지막에 남도 의병 항목을 따로 설정하여 7명을 추가, 인적 사항을 간단히 기록하였다.[20]	
	附錄	함경도 지역의 특성에 관한 기록한 것으로 「官制」[21]・「風俗」・「賦役」・「軍制」・「邊禁」・「學校」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官制는 함경도 지방의 관제를 기록하였고, 風俗에서는 『동국여지승람』과 李端夏의 『北關誌』를 참고하여, 함경도 지방의 특별한 풍속에 대해 기록하였다. 부역에서는 함경도의 부역 사정을 군제에서는 함경도 지방의 군제에 대해 자세	

		히 기록하였다. 특히 군제에서 함경도 지방에 설치한 기병부대인 親騎衛의 설치 과정과 城丁軍, · 咸興獨鎭에 대해서도 기록하였고, 土兵에 관한 유성룡 · 최립 · 이수광 · 곽재우 등의 논의를 略記하였다. 이 외에 軍器와 勸武(무과시험)에 관해서도 간단히 기록하였다. 邊禁에서는 국경을 넘지 못하게 한 법과 현재 상황에 대해, 學校에서는 학교의 미비와 문풍을 진작시키기 위해 들인 노력 등에 대해 기록하였다.

11) 鄭尙驥의『農圃地圖』,『東國文獻』의「輿地考」, 洪良浩의『朔方記』 등을 참고하였음을 밝혔다.(『북로기략』 卷1, "山川疆城之綱紀也. 今據『農圃地圖』鄭尙驥本「輿地考」東國文獻『朔方記』洪太學良浩, 集諸邑誌及雜記.撮錄. 于左史更俟博攷證正.")

12) 김진규의 소는「論豆江源遣官更審疏」이다.(『竹泉集』, 卷27 수록)

13) 城池 · 鎭堡 · 嶺路와 관련된 논의는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였다. 정윤용이 본문에서 밝힌 것을 위주로 살펴보면 李穀,「東遊記」; 鄭澔,「答兵使議定北路信地書北伯時」; 金錫胄,『息庵集』; 홍양호,『朔方記』; 李萬運,『關防集錄』 등이다.

14) 내용을 본격적으로 기록하기에 앞서 서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정조대 홍량호가 편집하여 올린『輿王肇乘』과『北關誌』·『朔方記』와 북로 인사들의 集錄한 것, 野乘 수십 종을 참고하였음을 밝혔다.『북로기략』, 卷2, "北路我朝之豳岐也. 六世七聖基跡集勳, 恭讀聞見所及旁据諸書.『輿王肇乘』, 正宗時洪太學良浩, 編輯箚進.『北關誌』·『朔方記』及北路人士所錄野乘數種.

15) 주로 홍량호의「삭방기」에서 발췌하였는데, 이 외에 이 지역에 남겨진 御製碑文와『邑誌』 발췌하기도 하였으며-예를 들어 德源의 사적인 赤田은 정조의「德源府赤田社紀蹟碑銘」에서 발췌; 文川 車破嶺의 유래 설은『文川邑誌』에서 발췌- 慶源의 사적인 龍堂은 남구만의「北關十景圖記龍堂」에서 慶興의 사적 중 赤池의 射龍臺는 홍량호의「射龍臺記」에서 咸興의 사적은 남구만,「咸興十景圖記 · 祭星壇」 · 홍경모,「豐沛聖蹟記下 · 祭星壇」에서 安邊의 사적은 홍경모,「豐沛聖蹟記下」 ·「安邊雪峯山釋王寺碑」 등에서 인용하였다. 이를 통해 정윤용이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16) 25군현은 다음과 같다. 安邊 · 德源 · 文川 · 高原 · 永興 · 定平 · 咸興 · 洪原 · 北靑 · 利原 · 端川 · 長津(新設) · 甲山 · 三水 · 厚州(新設) · 吉州 · 明川 · 鏡城 · 富寧 · 茂山 · 會寧 · 鍾城 · 穩城 · 慶源 · 慶興.

17) 이는『북로기략』의「州郡誌」의 범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북로기략』 卷2,「州郡誌」"北路州郡二十有五, 其可攷者, 亦已有類錄於他條者, 今掇其餘以爲誌, 而採取未博, 未免疏略云耳. 一, 州郡之山川大槩, 攷山川總要; 一, 鎭堡嶺隘海防之類, 攷關防; 一, 人物誌中, 有征胡討倭之功者, 攷故實; 一, 聖蹟, 攷龍興舊蹟; 一, 建置沿革亦攷故實; 一, 官制學校軍制邊禁民俗之類, 攷附錄.")

18)『북로기략』에서 짤막한 序를 덧붙여 이 지역의 연혁을 간단히 기록하였고,『輿地考』·『北關誌』·『朔方記』 등에서 채록하였음을 밝혔다.(『북로기략』, 卷3,「北路故實州郡沿革並附」, "北路舊係肅愼之地, 而以前無攷焉. 後爲高句麗地方, 而及夫新羅統一之時, 力不反於東北, 悉淪於女眞. 高麗太祖統合三韓, 亦只以鐵嶺爲界, 其後以次剪除, 然旋得旋失, 至于我朝限江爲界, 疆域始全. 今幷採『輿地考』,『北關誌』李畏齋端夏, 因澤堂草本添輯. 申大將汝哲增修刊行.『朔方記』, 編爲類錄, 更俟攷證.")

19) 배향된 인물 10명은 鄭文孚 · 李鵬壽 · 姜文佑 · 崔配天 · 池達源 · 【追配】李希唐 · 徐遂 · 李麒壽 · 朴惟一 · 吳慶獻로, 이들과 관련된 사적은「彰烈祠志」·「顯忠祠志」·『北關誌』· 李元培의『龜岩集』 등을 참고하였다.

20) 현충사에 배향된 8의사는 申世俊 · 吳允迪 · 崔彦英 · 許灌 · 鄭餘慶 · 尹竑 · 李希白 · 吳遵禮이며, 남도의병 항목에 추가로 기록한 일곱 사람은 柳應秀 · 李惟一 · 宋應武 · 盧國廷 · 金應珍 · 朴獻宗 · 白應祥이다.

21) 장서각 본(K2-4512)은 표제는 官制로 되어있고 본문에는 官別로 되어있다.

3.『北路紀略』의 서술적 특성

이상으로『北路紀略』의 전체적인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북로기략』의 서술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함경도 지역에 대한 인식 提高

『북로기략』에는「海寇 倭」와「同時諸義士」항목이 있어 왜적이 함경도에 침입한 과정과 의병이 일어나 이를 물리친 상황, 당시에 활동했던 의병에 대해 서술되어있다.『북로기략』에 실린 임진왜란의 의병 활동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다른 북방 관련 저술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북로기략』의 특징적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함경도는 이전에 李澄玉의 난, 李施愛의 난 등이 일어나 이 지역에 대한 외부의 일반적인 시각은 이곳이 反逆鄕이라는 것이었다.[22]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도 왜적이 함경도로 들어오자 이들을 반기는 백성도 있었으며, 鞠景仁・鞠世弼・鄭末秀와 같이 왜적에 협력하여 임해군・순화군과 여러 재신을 잡아 그들에게 바친 인물도 있었다. 이러한 일로 인해 함경도에 대한 인식이 후대에까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익이 정여일에게 답한 편지에서 "임진년 난리에서 畿湖 지방 이남으로 의병이 일제히 일어났는데 유독 西北[황해도・평안도・함경도] 지방에는 없었습니다. 鄭文孚는 評事로서, 曺好益은 유배 온 사람으로서 의병을 일으켰고, 서북인으로서 의병을 일으킨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壬辰之燹, 自畿湖以南, 義旅朋起, 獨西北無有也. 鄭文孚以評事, 曹好益以謫人, 本土之人則蓋寥寥焉.)"[23]라 한 것이나 정약용이 "(함경도)의 지방 풍속이 우둔하여 李施愛와 李澄玉 등이 한번 깃발을 휘두르며 난리를 일으키자, 백성이 쓸리듯 좇았다. 그 후에도 倭將 淸正이 北關에 침입하니 亂

22) 강석화,「조선후기 함경도 지역민의 국가의식」,『진단학보』136, 진단학회, 2021, 140면.
23) 李瀷,『星湖全集』, 卷12,「答鄭汝逸」; 성호사설에서도 비슷한 인식을 살필 수 있다.『星湖僿說』, 卷11,「人事門・西北武士」, "壬辰之亂, 自畿以南義兵之興, 不可盡數, 而西北三道, 盖無人焉, 當時北路, 有執王子大臣而投賊者矣, 大駕西巡蒼黃艱難, 當時其無惡逆之生心亦幸矣. 自壬辰至今日, 中間有甲子・丁卯・丙子三亂, 西邊之人, 只拱嘿觀變而已, 此人情大可見."

民 鞠景仁 등 이 시기를 틈타 화합해서, 藩臣과 帥臣을 다투어 죽이고 적에게 투항했다. 다행스럽게도 鄭文孚의 힘을 입어서 평정할 수 있었으나 바람이 불면 풀이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아서, 가장 걱정되는 곳이 이 지역이다."[24] 라 하여 이 지역 민심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에서도 이 지역에 관한 인식을 볼 수 있다. 또한, 평안도에서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자 이러한 인식이 더욱 고착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함경도에 대해 임진왜란에도 의병의 활동이 미미했던 곳, 민심의 향배를 알 수 없어 언제든 난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로기략』에는 鄭文孚를 중심으로 한 자세한 의병 활동은 물론 彰烈祠에 배향된 10명의 인물에 대해서도 그 활약상이 서술되어있다. 다음은 彰烈祠에 배향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李希唐에 관한 기록이다.

> 이희당은 북청에 살며 靑海伯 李之蘭의 7대손이다. 弓馬에 종사하여 밤에도 활쏘기를 연습하여 처자와 긴 새끼줄을 가지고 화살이 떨어지는 곳에 놓아두고 화살이 새끼줄에 가면 찾아서 가져와 다시 줍고 또 쏘기를 밤새도록 게을리하지 않았다. 25세에 무과에 합격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관직을 그만두고 돌아와 십년 동안 등용되지 않았다. 장림령 아래 사나운 호랑이가 있어 사람을 해침이 심하였으나 사람들이 감히 호랑이를 제거하지 못하였는데 희당이 화살 세 발을 가지고 달려가 호랑이가 성내어 포효하자 한 발을 쏘아 이마를 맞추었으니 그 지역의 사람들이 장하게 여겼다. 임진왜란 때 주을온만호가 되었는데 왜구가 북쪽으로 들어오자 종성 이북의 인심이 이반되어 虞候北 李範・穩城府使 李鉌・北兵使 韓克誠을 士人이 사로잡아 왜구에 바쳤다. 희당이 정문부가 도망가 산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듣고 달려가 의병을 일으킬 것을 여러 사람과 함께 의논하니 문부가 그 충정의 간절함을 살펴보고 비로소 허락하였다. 곧 근경의 수령, 변장과 사인들을 부르니 차츰차츰 와서 모여 문부를 추대하여 대장으로 삼고 희당이 부장이 되었다. 앞뒤로 크고 작은 전투에서 일찍이 나아가지 않음이 없었으니 전투에 나간 지 수삼월 사이에 이반한 관리를 사로잡아 목을 베고 북로를 수복하며, 왕자를 호랑이 입에서 벗어나게 하고 재신이 어육이 되는 것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義旅의 힘이었다. 백탑의 전투에서 온종일 싸웠는데 날이 저물 때 갑자기 날아

24) 丁若鏞,『經世遺表』, 卷3,「天官修制・郡縣分隸」,"土俗椎魯, 李施愛・李澄玉等, 一麾而倡亂, 民靡然從之. 其後倭將淸正入北關, 亂民鞠景仁等, 乘時和應, 爭殺藩臣帥臣以投賊. 幸賴鄭文孚之才, 得以平定, 然風吹草動, 其最可憂者, 此地也."

온 탄환에 맞아 죽었다. 문부가 臨溟에서의 승리와 희당과 붕수가 죽은 일을 장계로 올리니 행재소에서 듣고 상이 친히 물으시고 눈물을 흘리고 탄상하시며 訓鍊院正에 추증하였다. 희당이 죽기 전에 조정에서 그 노력을 가상히 여겨 특별히 慶源府使에 배수하였는데 미처 부임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한다. 숙종 계사년 啓目에서 북청 유생이 소를 올려 旌閭를 명하고 彰烈祠에 배향하였다.[25]

이희당은 나중에 추가로 彰烈祠에 배향된 인물로 다른 문헌에서는 그에 관한 행적이 그다지 나타나 있지 않다. 『북로기략』에는 이희당이 임진왜란 전부터 弓馬의 업에 밤낮으로 종사하며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 뛰어난 용맹함이 있었던 것, 임진왜란에 정문부와 의병을 일으킨 것, 임진왜란의 전투에서 활약하여 나라를 구한 것,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訓鍊院正에 추증되고 후에 창렬사에 배향된 것 등이 특별히 서술되어있다.[26] 정윤용은 이러한 서술을 통해 왜적에게 힘써 대항했지만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 있음을 알게 하여, 함경도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북로기략』에는 이희당 뿐만 아니라 창렬사에 배향된 임진왜란에서 활약했던 다른 인물들에 대한 서술이 있으며, 이들의 활약 뒤에 창렬사에 배향되지는 않았으나 임진왜란에 공이 있는 함경도 사람들의 출신 군현과 관련 활약도 서술되어있다.

① 吉州 사람 허진은 敵愾功臣 許惟禮의 증손이다. 충의로운 마음이 격렬히 일어나 왜적들 모르게 산골짜기를 다니며 병사를 모집하여 金國信과 좌우 척후장이 되었다. 길주의 전투에서 왜장 巨道文가 천여명의 병사로 명천 땅을 노략질하였는데 허진과 김국신이 귀로에서 기다려 복병이 저물녘에 왜적을 둘러싸고 石城嶺

25) 『북로기략』, 卷4, 「同時諸義士」, "李希唐居北青, 青海伯之蘭七代孫也. 從事弓馬, 夜亦習射, 與妻子引長繩拖落箭之處, 箭往於繩則摸索取之, 且拾且射, 達曙不懈. 二十五武科, 尋罷官歸十年不調. 長林領下, 有猛虎害人甚, 人莫敢除之, 希唐持三矢馳之, 虎怒吼, 一發破其額, 一境壯之. 壬辰爲朱乙溫萬戶, 倭寇入北, 鍾城以北人心離叛, 北虞候李範・穩城府使李鉌・北兵使韓克誠, 爲士人所擄致之倭. 希唐聞鄭文孚逃匿山谷中, 馳往與赴義, 諸人共議, 文孚察其忠, 懇始許之. 乃號召近境守令邊將及士人, 稍稍來會, 推文孚爲大將, 希唐爲副, 前後大小戰, 未嘗不冒, 及前鬪數三月之間, 能擒斬叛吏, 收復北路, 脫王子於虎口, 免宰臣於魚肉者, 皆義旅之力也. 白塔之戰, 終日格鬪, 日暮時忽中丸而卒. 文孚以臨溟之捷與希唐鵬壽死事之狀, 聞于行在, 上親問之, 至於流涕歎賞贈訓鍊正. 希唐之未歿也, 朝廷嘉其勞, 特拜慶源府使, 未及赴任而歿云. 肅宗癸巳目北青儒疏, 命旌閭享彰烈祠."

26) 이단하의 『彰烈祠志』(미국 버클리대 동아시아도서관 소장), 「北青儒生, 請李訓鍊正希唐追享疏」에서 略記한 것이다.

에서 활을 쏘았는데 모두 명중하여 시체가 산처럼 쌓였고 巨道文만이 홀로 도망가 벽에 들어가 통곡하며 나오지 않았다.27)

② 鏡城의 토병 庾億壽・李太玉・姜得璜은 왜적이 성을 점거하려 하자 분연히 떨쳐 일어나 몸을 돌보지 않고 활을 쏴서 왜적을 죽였다. 의병이 성에 들어오자 모두 와서 왜적의 머리를 바쳤다.28)

③ 穩城 관노 余貞은 신립을 따라 오랑캐를 정벌하는 데 공이 있었으며, 평사 정문부의 의병을 따르다가 嶺東의 전투에서 죽었다.29)

정윤용은 위처럼 함경도 내의 출신 지역과 그 지역에서 의병을 일으켜 왜적에 대항했던 사람의 일을 기록하여, 함경도 전역에서 의병이 일어나 왜적을 물리치는 데 힘썼음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에 정윤용은『북로기략』에서 이 지역의 많은 사람이 왜적에 맞서기 위해 분연히 일어났음을 알리고자 ①처럼 스스로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물리친 사람, ②처럼 토병으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왜적을 죽이고 의병에 합류한 사람 등을 서술하였다. 또 士人뿐 아니라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왜적에 저항하였음을 알리고자 ③처럼 관노임에도 의병을 따라 순국한 인물이 있었음을 서술하였다. 이 외에도 정윤용은「州郡誌」의 人物 항목에 이시애의 난에 공을 세운 許惟禮나 임진왜란을 틈타 西水羅에 침범한 藩胡를 퇴치한 咸德浩・金傑, 龍骨大의 호통에 맞서 용감하게 행동하여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할 수 있게 했던 朴仁範 등 함경도 지역에서 국란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던 인물들을 특별히 서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북로기략』에는 임진왜란 시기에 왜적에 대항한 인물들에 관해 서술되어있으며, 함경도 전역에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의병을 일으키고 의병 활동에 참여한 사실들이 서술되어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시애의 난, 병자호

27)『북로기략』, 卷4,「同時諸義士」,“吉州人許珍, 敵愾功臣惟禮之曾孫. 忠憤激烈, 潛行山谷, 募兵, 與金國信爲右右斥候將. 吉州之戰, 倭將巨道文以千餘兵掠明川地, 珍・國信要歸路, 伏兵暮圍之, 石城嶺射無不中, 積屍如山, 巨道文獨跳入壁痛哭不出.”

28)『북로기략』, 卷4,「同時諸義士」,“鏡城士兵庾億壽・李太玉・姜得璜, 倭賊據城, 奮不顧身, 射殺倭賊. 及義兵入城, 俱來獻馘.”

29)『북로기략』, 卷4,「同時諸義士」, 穩城官奴余貞, 從申砬征胡有功, 從鄭評事義兵, 死於嶺東之戰.

란 등에 활약한 인물들도 서술되어있다. 정윤용이 함경도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제고되기를 바랐기에 『북로기략』에 이러한 서술적 특성이 드러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30)

2)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자신의 견해 표출

18-19세기 이후 함경도 지역은 조선의 豐沛之鄕이자 청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변경으로서 이 지역에 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였고 더불어 숙종 이후 북방지역의 영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며 18-19세기를 거쳐 다양한 북방 관련 저작들이 편찬되었다. 함경도 지방의 다양한 邑誌가 있었으며 洪良浩가 慶興府使로 부임하였을 때 그 지역의 풍속 등을 기록한 『朔方風土記』(1777-1778)를 비롯하여 洪儀泳(1750-1815)이 함경도 북평사의 관직에 임명되어 이 지역을 다스릴 방책과 함께 풍속 등을 기록한 『北關紀事』(1807-1808), 역시 북평사의 관직으로 함경도에 다녀온 朴來謙(1780-1842)이 쓴 근무일지 성격의 『北幕日記』(1827-1828) 등 관인들이 북방지역으로 부임하여 저술한 여러 종류의 저작들이 있었다. 관인들의 저작 외에도 북방지역을 둘러보고 온 사람들에 의해 지어진 여러 작품이 있었으며, 이 지역 인사들이 작성한 자료들도 풍부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정윤용도 『북로기략』을 저술하며 이 지역과 관련된 여러 저술과 자료를 참고하였다. 이에 『북로기략』에는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드러낸 서술이 자주 나타난다.

> 『北關誌』를 살펴보니 "공주의 옛 성은【지금의 아오지이다】 처음에 慶源府에 설치했다가 다시 慶興府에 설치하였으니 설치한 곳이 곧 윤시중이 진을 설치한 곳이다."라 하였다. 『邑誌』에 이르기를 "진을 설치하여 공험진내방어소로 삼았다."고 하였다. 『삭방기』에서 "외공험진은 소하강가에 있으며 산꼭대기에 비를 세웠

30) 정윤용이 이처럼 의병 관련 활약을 기록한 것은 정원용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원용은 『북행수록』「人物」편에서 몇몇 의병들의 행적을 간략히 수록하고 議에서 이들이 그 활약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이들을 추증해 주어 이 지역의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조정에 요구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정원용의 이러한 태도가 정윤용에게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라고 하였으니 공험진 방어소는 당시에 내외의 진이 있었다.[31]

북방 관련 자료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윤관이 개척한 9성 가운데 가장 북쪽에 있었다는 공험진의 위치와 그가 비를 세웠다고 전해지는 선춘령의 위치였다. 당시에도 길주 이남에 공험진성이 있었다는 의견과 두만강 북쪽 너머에 공험진성과 선춘령이 위치한다는 의견이 존재했다. 처음에 인용한『북관지』는 경흥에 공험진이 있었다는 것인데, 다음으로『읍지』에서 진을 설치하여 공험진내방어소로 삼았다는 내용을 인용하고, 다시『삭방기』에서 "외공험진이 소하강가에 있으며 산꼭대기에 비를 세웠다."는 내용을 가져온 뒤 공험진 방어소에 내외가 있었을 것이라는 자기 의견을 덧붙였다. 정윤용은 이 자료들을 인용하여 내공험진은 경흥부에 있는 것이지만, 외공험진은 북쪽의 소하강에 있었을 것이며 결국 윤관이 설치한 공험진이 조선의 경흥부가 아닌 두만강 북쪽 너머에 있는 외공험진이었을 것이라는 자신의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이처럼 공험진과 선춘령이 두만강 이북에 있었을 것이라는 정윤용의 생각은 바로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잘 드러난다.

> 선춘령은 지금 저들의 땅이다.『삭방기』에서 "선춘령은 慶源 두만강 북쪽 700리에 있다. 윤관이 땅을 개척하여 여기에 이르러 공험진을 쌓고서 마침내 산꼭대기에 비석을 세워 '고려의 경계'라 새겼으니 비석의 4면에 글이 있었는데 호인들이 깍아버렸다."고 하였다. "혹자는 鍾城 북쪽 700리"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느 방향인지 모르겠다. 또 "회령 高嶺鎭으로부터 두만강을 건너 古羅耳를 넘고 吾童站·英哥站을 지나 蘇下江에 이르면 공험진의 옛터가 있는데 남쪽으로 具州와 探州를 접하고 북쪽으로는 堅州에 인접한다."고 하였다. 東史에서는 "윤관이 여기에 이르러 비석을 세우고 경계로 삼았다."라고 하였으며, 또 "巨陽城에서 서쪽으로 선춘령까지의 거리가 60리쯤이며 성은 곧 윤관이 쌓은 것이고 남쪽으로 縣城까지의 거리가 250리이니 흑룡강 경계에 있는 듯하다."라 하였다.[32]

---

31)『북로기략』, 卷3,「拓邊」, 按『北關誌』孔州舊城【今阿吾地】, 初設慶源府, 再設慶興府, 處卽尹侍中設砦處也. 誌曰, 設砦爲公險鎭內防禦所.『朔方記』曰, 外公嶮鎭, 在蘇下江濱, 立碑嶺上云云, 則公險鎭防禦, 當時有內外之鎭也.

32) 위의 글, "先春嶺, 今在彼地.『朔方記』曰, 先春嶺, 在慶源豆滿江北七百里, 尹瓘拓地至此, 城公嶮鎭, 遂立碑於嶺上, 刻曰, '高麗之境' 碑之四面有書, 胡人剝去. 或云'鐘城北七百里.' 未知的在何方.' 又曰, '自會寧

먼저 선춘령이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 땅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 『삭방기』에서 공험진과 선춘령이 慶源 두만강 북쪽 700리에 있다고 기록한 것,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공험진의 위치가 두만강을 건너 북쪽으로 한참을 지난 蘇下江가에 있으며 중국 땅과 접하고 있음을 설명한 것, 또 중국에 있는 巨陽城에서 서쪽으로 선춘령까지의 거리가 60리쯤이며 윤관이 거양성을 쌓은 것이고 이 거양성이 흑룡강 경계에 있는 듯하다는 「龍飛御天歌」의 말을 인용하여[33] 선춘령이 우리 땅이 아닌 저들의 땅에 있다는 의견을 뒷받침하였다. 이러한 서술을 통해 정윤용이 여러 문헌에서 얻은 정보를 적절히 기록하여, 선춘령의 위치가 두만강 너머 저들의 땅에 있다는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고자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8세기 이후 先春嶺의 위치를 두만강 이북으로 보는 견해가 대두되어 하나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는데,[34] 같은 시기 회령 부사로 부임했던 정원용도 이러한 견해를 수용하여 『철북습록』에서 선춘령의 위치를 두만강 이북 700리라고 하였다.[35] 정원용은 여기에 다른 기록을 덧붙이지 않았는데 정윤용은 공험진과 선춘령의 위치를 기록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그 둘의 위치를 나름대로 살펴 제시하고자 하였다.

> 北靑甫 靑杜(부에서 동쪽으로 30리) 虛川坪에 옛 성터가 있는데 세상에 전하기를 이것이 숙신씨의 옛 도읍이라고 한다. 성안이 모두 기름진 밭으로 그곳에 거하며 농사짓는 자들이 땅을 파면 혹 철물을 얻기도 하고 혹 돌도끼와 돌화살촉

高嶺鎭, 渡豆滿江, 踰古羅耳歷吾童站・英哥站, 至蘇下江有公嶮鎭古基, 南隣具州探州北接堅州' 東史云 '尹瓘至此立碑爲界.' 又曰'巨陽城西距先春嶺六十里許, 城卽尹瓘所築, 而南距縣城二百五十里, 疑在黑龍界'"

33) 이 부분은 『관곡야승』의 「外公嶮鎭」, 「先春嶺」 조목도 적절히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거양성에서 남쪽으로 縣城까지의 거리가 250리라고 하였고 이 현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세주를 통해 밝혔다.("按巨陽城載慶源誌, 而巨一作關. 縣城北九十里, 山上有古石城, 名曰於羅孫站. 其北三十里, 有虛乙孫站, 其北六十里, 有留善站, 其東北七十里, 有土城古基, 卽巨陽城, 內有兩石柱, 古縣鍾處.…中略…世傳城乃尹瓘所築. 縣城亦載慶源誌, 而自鎭北堡渡會叱家川, 大野中有土城名曰縣城, 城內有六井, 「龍飛御天歌」, 白'奚關城東距訓春江七里, 西距豆滿江五里,' 疑是. 又『朔方記』曰, 鄯城西距豆江五里, 東距訓春江七里, 內有六井, 亦稱奚關城, 據此則縣城意卽今彼之鄯城. 鄯與縣音相近也.")

34) 강석화, 『조선 후기 함경도와 북방영토의식』, 경세원, 2000, 251면.

35) 『鐵北拾錄』, 「先春嶺」, "先春嶺在慶源北, 豆滿江七百里. 尹瓘拓地至此, 城公險鎭, 遂立碑於嶺上, 刻曰, '高麗之境', 碑之四面有書, 胡人削去云."

을 얻기도 한다.

『여지고』를 살펴보니 성터의 둘레가 3490척이라고 하였는데 일찍이 사방의 들판을 둘러보니 광활한 가운데 작은 성터가 있었으며 사방이 고르고 평탄하였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길이가 260보이며 사방에서 오직 북쪽의 성터만 분별할 수 있는데 높은 곳은 숨을 만하고 낮은 곳은 반장 정도라고 한다. 혹 작은 붉은 돈대가 있기도 한데 전하기를 초루의 옛 터라고하며 성터 안에 사는 백성들이 거의 100호이며 밭은 30일 갈이로 土城村이라고 이름한다고 한다. 제가들의 야승에 또 실려 있기를 흑수말갈로【숙신씨가 살던 땅에 살았다】 나뉘어 生女眞과 熟女眞이 되었다고 한다. 숙여진은 함관령 이남의 땅에 있었는데『宋史』에서는 混同江 이남의 땅이라고 하였고, 생여진은 함관령 이북의 땅에 있었는데『宋史』에서는 混同江 이북의 땅이라고 하였다. 이에 근거하면 숙신씨가 살았던 강역의 경계를 비록 상고할 수는 없지만 북쪽 땅이 대개 숙신씨의 옛 터일 것이다.36)

위는 肅愼氏 조목으로 먼저 北靑의 虛川坪에 옛 성터가 있는데 이곳이 숙신씨의 옛 도읍이라고 하며,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관련 유물을 얻기도 한다는 것을 기록하였다.37) 정윤용은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北靑 주변이 예전 숙신씨가 살았던 지역이 맞는지에 대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조목 아래에 덧붙여 기록하였다. 정윤용은『여지고』와 자신이 보고 그 지역 백성에게서 들은 것, 제가들의 野乘, 우리나라의 기록,『宋史』에 실린 중국의 기록을 참고하여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록이 조금씩 달라 숙신씨가 살던 지역의 한계를 정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북쪽 일대가 숙신씨가 살았던 곳이 맞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

36)『북로기략』, 卷3,「肅愼氏」,“北靑甫靑杜【府東三十里】虛川坪, 有故城址, 流傳是肅愼氏故都也. 城內皆是良田, 人民居之, 耕者掘地, 或得鐵物, 或得石斧石鏃.

按『輿地考』城址周三千四百九十尺, 而嘗見其四野, 曠然之中, 有小城址, 四方均正. 居人言其長爲二百六十步, 四方惟北城址可辨, 其高處可隱, 低可半丈. 或有小丹墩, 傳爲譙樓舊基, 城址內居民近百戶, 田爲三十日耕, 仍名爲土城村云. 諸家野乘, 又載黑水靺鞨【居肅愼故地】, 分爲生女眞, 熟女眞. 熟女眞在咸關嶺以南之地,『宋史』混同江以南之地, 生女眞在咸關嶺迤北之地,『宋史』混同江迤北之地. 據此則肅愼疆界所限, 雖未可攷, 而北地概爲肅愼之舊矣.”

37) 이규경의『五洲衍文長箋散稿』,「人事篇・兵器」,“按東北朔方, 本肅愼氏地方也. 故耕田時, 農人種種拾得石鏃石斧, 蓋肅愼舊物也.”라는 기록이 보인다.

> 살펴보건대 건주와 우리의 경계가 서로 가깝다. 세조 4년 대명이 건주의 추장 董山과 교통하고 職事를 내린 것에 대해 칙서를 내려 크게 질책하여 조선에서 사신을 보내어 소명하였으니[38] 그때 건주에 이미 추장이 있었다. 또 누르하치가 살던 곳이 북쪽 경계와 매우 가까웠으니 지금 회령의 甫乙下鎭 강 건너편에 높은 봉우리가 있는데 汗生臺라고 한다. 토착민들의 전하는 말에 여기가 누르하치가 살았던 곳이고 崇德 황제가 이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汗生臺라고 이름하였다고 한다. 대는 두만강 북쪽 衆山에 있고 강에 맞닿은 한 봉우리가 높이 솟아 있는데 주위의 나무하고 사냥하는 토착민들 중 혹 몰래 강을 넘어 봉우리에 올라가 본 자들이 대안 웅덩이의 둘레가 4-5리 정도이고 안에 주춧돌 등이 있어 집터임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전하기를 錦南 鄭忠信이 甫乙下僉使가 되었을 때 때때로 누르하치와 서로 만났다고 하니 아마 대가 강변과 우리나라 경계에서 몇 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을 것이다.[39]

정윤용은 청나라를 세운 건주여진이 살던 곳이 조선의 북쪽 경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의 하나로 먼저 세조 때 건주여진의 추장과 교통한 일로 명나라의 질책을 받아 소명한 사실을 들어, 건주에 예전부터 추장이 있었고 서로 교류할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었음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汗生臺[40]가 있는데 누르하치가 살고 홍타이지가 태어나 그러한 이름이 붙었다는 것과 그 안에 집터가 있음을 보았다는 그 지역민들의 말을 기록하고, 이에 대해 정충신이 보을하첨사였을 때 누르하치와 만났다는 사실을 부기하여 지역민들의 이야기에 신빙성을 더하였다. 정윤용은 이처럼 세조 때의 사실, 지역 토착민들의 이야기, 정충신과 누르하

---

38) 『조선왕조실록』 세조 5년 4월 16일 조에 관련 내용이 보인다.

39) 『북로기략』, 卷3, 「淸人始起」, "按建州與我境相近. 世祖四年, 大明以與建州酋董山交通授職事, 降勅切責, 遣使辨明, 則其時建州已有酋長矣. 又老羅赤所居切近北境, 今會寧甫乙下鎭江越邊, 有高峯名汗生臺, 土人傳言, 是老羅赤所居, 崇德皇帝誕於是地故名汗生臺. 臺在豆漫江北衆山之中, 臨江一峯陡起, 而四方土人之樵獵者, 或有潛渡登見者, 臺中窪而周可四五里, 中有柱礎之屬, 可辨宅基. 又傳鄭錦南忠信, 爲甫乙下僉使, 時時與老羅赤相逢, 蓋臺在江邊與我境不幾里也."

40) 汗生臺에 관해 정원용의 『경산일록』, 庚寅(1830), 十一日, "往西山高烽墩, 望見汗生臺. 臺在隔江, 相望數百步許. 又傳江內, 有崇德祖廟, 墓前有楸木, 彼人每尋問, 我人以不知爲答云."이라는 서술이 있다. 汗生臺는 다른 기록에는 잘 나타나지 않고, 정원용의 『經山日錄』, 『鐵北拾錄』에 보이고, 정원용이 六鎭에 관해 쓴 시 「六鎭紀績」에 있다. 정윤용이 정원용과 함께 북방을 돌아다니며 汗生臺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산일록』 원문은 정원용, 허경진・구지현 옮김, 『국역 경산일록』, 보고사, 2009를 참고하였다.)

치가 만났다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건주여진이 터전이 우리 경계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을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한 것이다.

19세기는 북방 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던 시기였다. 북방 지역과 관련된 많은 저술이 나왔고, 이러한 저술이 다양하게 보급되면서 중앙정계나 사상계에서 함경도 지역을 이역시하는 분위기가 많이 해소되었다.[41] 이에『북로기략』에도 북방 관련 다양한 자료가 활용되었으며, 정윤용은 이를 토대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뒷받침하기도 하였다.

3) 北方의 변화된 實狀 기록

정윤용은 정원용을 따라 회령에 가 머무르며 이 주변 지역을 둘러볼 수 있었고, 공무로 바쁜 정원용을 대신하여 서울을 왕래하고 심부름을 하는 등 비교적 자유롭게 북관 지역을 다녔던 것으로 보인다.[42] 정윤용은 이 지역을 돌아다니며 견문한 것을 바탕으로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달라진 점이 있으면, 이를 기록하고자 하였다. 다음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 掛弓松은 본궁 뒤뜰에 있으니 태조가 손수 심으신 것으로 松軒이라 이름한 것도 모두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 세 그루가 있는데【내가 살펴보니 앞뜰에 또 두 그루가 있는데, 썩어 쓰러진 것은 오래된 줄기만 남았고 나머지 궁을 지키고 있는 것은 또한 태조께서 손수 심으신 것이라고 한다. 뒤뜰에 세 그루는 두 그루는 또한 이미 썩어 쓰러졌고 오직 한 그루만 기이하고 예스러우며 구불구불하다.】 한 그루는 크기가 10아름쯤이고 가지와 줄기가 드리워져 있고 땅을 차지한 것이 십묘로 모두 長木으로 버티고 있다. 임진왜란 때 왜적이 도끼로 한 가지를 베었는데 선혈이 솟아나고 바람과 번개가 크게 일어나 적도들이 놀라 흩어졌으며 감히 다시는 가까이하지 못했다고 한다.[43]

---

41) 강석화, 앞의 책, 120면.

42) 정원용의『經山北征錄』에 정윤용에게 보낸 시(「次景執見京書韻」·「書贈景執」·「景執往鍾城寄詩催行」)와『경산일록』에 정윤용을 慶源開市에 보낸 일(庚寅. 一月十六日) 등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43)『북로기략』, 卷2,「聖址·咸興」,"掛弓松在本宮後庭, 太祖手植, 松軒之號, 皆起於此. 今有三株,【按前庭又有二株, 朽臥者, 只餘舊幹丈, 餘守宮者, 亦指謂太祖手植云. 後庭三株 二株亦已朽臥 惟一株奇古蟠屈】. 一株大十一圍許, 枝榦倒垂, 蟠據幾十畝, 皆以長木撐拄. 於壬辰倭賊斧斫一枝, 鮮血迸出, 風雷大作, 賊徒驚

위는 태조가 심고 활을 걸어두었다는 掛弓松과 관련된 것으로 정윤용이 이곳에 가서 직접 보고 예전과 달라진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위의 내용은 홍양호의 「朔方風謠」의 「掛弓松」의 詩序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44] 詩序에서는 뒤뜰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한 그루는 말라 뿌리와 줄기만 남았고, 나머지 두 그루는 남아 있어 하나는 크기가 15아름쯤이고, 나머지 한 그루는 11아름쯤이라고 하였다. 정윤용이 이 掛弓松을 보러 갔을 때는 그 전의 기록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앞뜰에 있는 나무가 있었고, 또 예전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남아 있다고 하였으나 15아름쯤 되는 나무는 이미 썩어 쓰러지고 10아름쯤 되는 나무 한 그루만 남은 것을 보았다. 이에 기존의 기록에서 두 나무에 대해 서술한 내용은 인용하지 않고 대신 자신이 직접 본 예전과 달라진 현재의 상태를 서술하였다.

> ① 『勝覽』을 살펴보니 왼쪽과 같이 적혀 있었는데 중종 조 때이고 『北關誌』는 숙종조 때에 지었는데【畏齋 李端夏가 찬집한 것이다.】 지금 외재 때와의 거리가 또한 이미 백수십 여년이다. 풍속의 대개는 앞에 실려 있는 것과 같으나 또한 이전과 다른 것이 많으니 복식의 제도가 크게 다르다. 듣기로는 식견이 있는 자는 혹 사치가 점점 더해가는 것을 근심한다고 한다. 사람들이 모두 弓馬를 익히나 기예가 예전에 미치지 못하니 국경의 경계가 그친 이후에는 이치와 형세가 또한 그러하다. 士人은 대부분 科業을 숭상하며 혹은 스승을 찾고 경서를 담론하는데 종사한다. 社祭鄕祠와 여러 읍이 모두 그러하여 전날에 거칠고 투박했던 것과는 다르고 文業이 조금 나은 자들은 또한 대부분 京師에 가서 유학한다. 백성들 대부분이 빈곤하고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며 훔치지 않는 습속도 또한 전과는 다르니 대략 근래에는 예전의 순박하던 것과는 같지 않다.[45]

散, 不敢復近."

44) 『耳溪集』, 卷5, 「朔方風謠・掛弓松」, "在咸興本宮後庭中, 今有三株, 極奇古, 一株自枯, 只餘根幹, 堅如銅鐵. 一株大十五圍許, 一株大十一圍許. 枝幹倒垂. 蟠據幾十畝, 皆以長木撐拄. 壬辰之亂, 倭賊斧斫一枝. 鮮血迸出. 風雷大作, 賊徒驚散. 不敢復近云."

45) 『북로기략』, 卷4, 「風俗」, "按『勝覽』之作左, 中宗朝時, 『北關誌』之作, 在肅宗朝時【李畏齋所撰集】, 今去畏齋時亦已百數十餘年. 風俗之大槩如右所載, 而亦多異於前者, 服食之制大異. 所聞, 有識者, 或以奢靡之漸加爲憂. 人皆習於弓馬而技不逮古, 邊警旣息之後, 理勢亦然矣. 士子則多尙科業, 亦或有從事於尋師談經之學. 社祭鄕祠比邑皆然, 大異前日之貿貿, 而文業稍優者, 亦多往遊京師. 民多貧困耐飢寒, 不偸窃之習, 亦異於前, 大略近不如古之純於樸也."

> ② 북로의 사람에게 들으니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邊禁이 예전과는 다른데 법이 오래되어 해이해진 것이 아닙니다. 部城・訓春의 사람이 間年 마다 경원 개시에 왕래하므로 100년의 사이에 언어가 조금 서로 통할 수 있고 顔情이 점차 익숙해져 興源의 백성이 굶주리는 해에 대부분 강을 몰래 건너가 알동의 팔지에서 마방을 캡니다.【菱芠이다 북로의 방언이다.】 혹 사냥 하는 청나라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좋은 말로 서로 위로하기도 하도 혹 굶주릴 때는 먹일 것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혹 몰래 가서 슬해에 이르기도하고 소금을 만드는 곳에서는 머무르게 하고 먹여주었으므로 트집을 잡아 싸우고 틈이 생길 일이 없으니 관원은 전혀 알지 못하고 비록 혹시 들어 알더라도 정확히 잡아낼 증거가 없어 알지 못한 채로 내버려 두니 온성・종성・회령과 여러 읍이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저들의 땅과 강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어도 강 밖의 수백리의 땅은 넓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으니 땔나무를 줍는 자들이 항상 몰래 건너가고, 강가의 백성들도 우리 국경에 땔나무가 극히 드물어 강을 건너가 땔나무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관원이 또한 비록 알더라도 어찌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 큰 금함만 시행할 뿐입니다. 사냥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성품이 사납고 이익을 탐하며 또한 손에 도구가 있어서 서로 만나며 혹 서로 죽이는 폐해가 없지 않다고 하는데 이는 또한 전혀 들어보지 못했으니 어찌 깊은 산골 골짜기 사이에 있어서 듣지 못해서이겠습니까. 이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46)

①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북관지』에서 함경도의 풍속에 대해 기록한 부분을 초록하고 나서 자신이 보고 느낀 북방의 풍속을 부기한 부분이다. 『승람』과 『북관지』는 함경도 지역과 관련된 대표적인 저술로 당시 함경도 지역에 대한 이해는 여기에 바탕을 둔 것이 많았다. 정윤용도 『북로기략』에서 이 두 책에서 인용하여 이 지방민들의 복식, 가옥, 기후, 武를 숭상하는 풍조, 일반 백성들의 생활 방식 등을 기록하였다. 정윤용은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승람』이 중종 대에 지어진 것이라 당시와 거리가 너무 멀고, 『북관지』

46) 『북로기략』, 卷4, 「邊禁」, "按聞之北路人曰, 邊禁之異昔, 不獨法久而弛也. 部城・訓春之人, 間年來往於慶源開市, 故類百年之間, 言語稍可相通, 顔情漸至習熟, 故興源之民餓歲, 多渡江潛採馬房【菱芠也, 北路方言】於斡東八池. 或逢彼人之行獵者, 則必好言相慰, 或念其饑而饋之. 又或有潛往之瑟海, 煮鹽所則留之以饋, 故無鬪詰生頃之事官不聞知, 雖或聞知, 無以的執證左, 置之不知之中, 如穩鐘會諸邑, 雖與彼地隔江, 而江外屢百里地曠無人居, 樵採者常常潛渡, 而且沿江之民, 我境則薪樵極罕, 不渡則不得也. 故官亦雖知而無如之何也. 故律設大禁而已. 至於行獵之人, 則性多勇悍而貪利, 且手有器械, 故相逢或不無相戕之弊云, 而此亦絶未之聞, 豈在於深山窮谷之間, 而莫之聞歟, 是未可知也云."

역시 숙종 대(1693년)에 지어진 것이기에 그때와 지금의 거리가 있음을 지적하고 자신의 견문을 바탕으로 예전과는 달라진 북방 풍속을 서술하였다.

『승람』에서는 북방의 풍속에 대해 "순박하고 우직하며 근검하고 힘이 세고 사나우며, 말을 달리고 활을 쏘는 것으로 업을 삼으며, 이익으로 유혹하며 함부로 허락한다.(淳朴愚直勤儉强悍, 以馳馬彎弓爲業, 動之以利, 妄爲然諾)"라 하였고, 『북관지』에서는 "굶주림과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어도 끝내 도둑질하는 습속이 없으며 선비 된 자들은 다만 한 부의 『대학』만 읽어 考講의 자료로 삼으니 또한 문의를 알지 못한다.(饑寒到骨, 竟無偸竊之習, 其爲士者, 只讀一部大學, 以爲考講之資, 亦不知其文義也)"[47]라 평가하였다. 이는 당시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던 북방에 대한 인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윤용은 다른 풍속은 달라진 것이 없음을 말하면서, 사치가 더해가는 풍조, 무를 숭상하던 풍조가 쇠퇴하고 문을 숭상하게 된 것, 예전만큼 순박하지 않은 민심 등 변화된 점 또한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정윤용이 자신의 직접 본 것을 서술하여, 당시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라진 북방의 변화된 실제 풍속을 기록하고자 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당시 정윤용이 따라갔던 從弟 정원용도 『北行隨錄』이라는 저술을 남겼는데, 거기서 북방의 풍속에 대해 "옛날 풍속기에 말하기를 북쪽의 풍속은 순박하고 우직하며 근검하고 힘이 세고 사나우며, 말을 달리고 활을 쏘는 것으로 업을 삼으며, 이익으로 유혹하며 함부로 허락하고 무사를 숭상하며, 長轂車를 타고 다니니 여러 고을이 대부분 이와 같다고 하였다. 지금 회령을 통해 살펴보면 대체로 위와 같으나 한 번 蕃胡가 철수하여 防守가 영영 해이해진 후로는 궁마의 업이 조금 쇠퇴하였다. 그러나 국경 안의 활을 쏘는 선비들이 여전히 7-8백 명 정도 되고 말을 달리고 활을 잘 쏘고 騎芻를 하지 못함이 없으니 다른 도에 비하면 궁마의 고장이라고 할 만하다. 귀양 온 사람과 명인과 관원의 현명한 자들이 또 사인을 잘 가르쳐서 禮俗이 자못 행해진다."[48]라 하였다. "今以會寧觀之-謂弓馬之鄕也"는 정원용이 본 회령의 상황이고

47) 『북로기략』, 卷4, 「風俗」
48) 정원용, 『북행수록』, 「鐵北拾錄」, 「北俗紀略・古俗」, "古風俗記曰, 北俗淳朴愚直勤儉强悍, 以馳馬彎

앞은『승람』에서 뒷부분은『북관지』에서 발췌한 것이다. 정원용은 궁마의 업이 쇠퇴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곳에 비하면 여전히 궁마의 고장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는 달리『북로기략』에는 사인들이 문풍을 쫓는 실상을 정윤용이 본 그대로 서술하여, 변화된 풍속에 대한 좀 더 사실적인 정보가 담기게 되었다.[49]

함경도는 개시를 통해 점차 상업이 발달하여 18세기 후반에는 상업 경제가 활기를 띠었으며,[50] 조정에서 무풍을 진작시키기 위해 노력하던 것에서 정조 후기부터 이 지역의 문풍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였으며, 북방의 인사들도 문학에 종사하면서 문풍을 주도하였다.[51] 북방에 사치스러운 풍조가 더해지고 문풍을 숭상하게 된 것은 이러한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북로기략』의 서술을 통해 이러한 변화의 일단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정윤용이 그 당시 북방의 실상을 잘 포착하여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2]는 邊禁에 관련된 것으로 앞서 犯越의 상황과 영조 대에 범월한 사람을 지방관이 제대로 잡아들일 수 있게 하고, 혹시라도 이를 덮어주었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죄를 엄하게 할 것을 논의한 일을[52] 略記하였다. 정윤용은 이 항목 아래에 현지 북로인에게 들은 말을 기록함으로써 현지의 실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밝혔다. 犯越에 대해서는 邊禁이 법이 오래되어 해이해진 것이 아니라 開市를 통해 서로 왕래가 잦아져 익숙해졌으며,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도와주며 살아 변경을 쉽게 넘어가게 되었음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이어 관원들이 변경을 넘는 사람들을 잡아내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기에 관원들이 알지 못하고, 알더라도 증거가 없어 내버려 두며, 우리나라에 땔나무가 부족하기에 저들의 땅에 가서 땔나무를 가져오더라도 관원들이 눈감아

弓爲業, 動之以利, 妄爲然諾, 尙巫祀, 行長轂車列郡率皆類此云. 今以會寧觀之, 大槩如右, 而一自蕃胡輟去防守永弛之後, 弓馬之業少衰. 然境內彎弓之士, 猶爲七八百人, 無不能馳馬善射騎芻, 比於他道則可謂弓馬之鄕也. 謫客名人及官員之賢者, 或敎誨士子, 故禮俗頗行."

49) 이는 정원용이 관직을 맡아 부임한 관원이었고, 정윤용은 벼슬을 하지 않았던 성균관 유생 신분이었다는 점에서도 일부 그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50) 고승희,『조선후기 함경도 상업 연구』, 국학자료원, 2003, 참고.

51) 강석화, 앞의 책, 213-225면 참고.

52)『승정원일기』영조 5년, 9월 20일에 해당 내용이 보인다.

주기 때문이라는 구체적인 실상을 서술하였다. 이는 모두 정윤용이 함경도 현지에 갔었기에 거기에서 들을 수 있었던 것으로, 정윤용은 현지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현지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기록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를 기존의 논의에 덧붙여 기록하였기에 조정에서의 邊禁의 논의와 현지에서의 실상에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는 사실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처럼 정윤용이 자신의 견문을 바탕으로 북방 관련 정보를 사실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기에, 『북로기략』에는 기존 자료에서 볼 수 없었던 북방의 변화된 실상이 담기게 되었다.[53]

4. 결론

『北路紀略』은 정윤용이 1829-1830년 함경도 지방을 돌아보고 지은 저술로, 그동안 북방 관련 풍부한 자료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었으나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고는 『북로기략』 연구의 시작으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북로기략』에는 백두산 주변의 지형, 大澤의 원류, 백두산 정계비를 비롯하여 함경도 지방의 전반적인 정보, 豐沛之鄕으로서의 함경도의 위상을 보여주는 태조와 선대들의 사적과 유적, 북방 지역 주변 민족에 대한 내용, 임진왜란 때 함경도 지역의 의병 활동, 이 지역의 특성 등이 기록되어 있다. 『북로기략』은 다른 북방 관련 저술과 비교하면 그 양과 내용이 풍부하기에 조선 후기 북방에 관한 저술 가운데 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북로기략』의 서술적 특성을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함경도에 대한 기존의 인식은 부정적인 측면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북로기략』에는 『북로기략』에는 임진왜란 시기 함경도 지역의 왜적 침입과 의병 활동에 대해 「海寇 倭」와 「同時諸義士」 두 조목에 걸쳐 자세히 되어있으며, 그 내용 또한 다른 북방 관련 저술보다 풍부하다. 이 외에도 國亂에 활약했던 다

53) 이 외에도 兵營·行營의 논의에 대해 北路 人士의 의견을 싣기도 하고, 輸城에 대한 의견에 대한 북로 인사의 말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며, 개시에서의 해삼의 밀매와 밀매 가격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기도 하는 등 북방 관련 여러 사정을 실었다.

양한 인물들도 서술되어있다. 정윤용이 이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제고시키고자 하였기에 이러한 서술이 나타나게 되었을 것으로 보았다.[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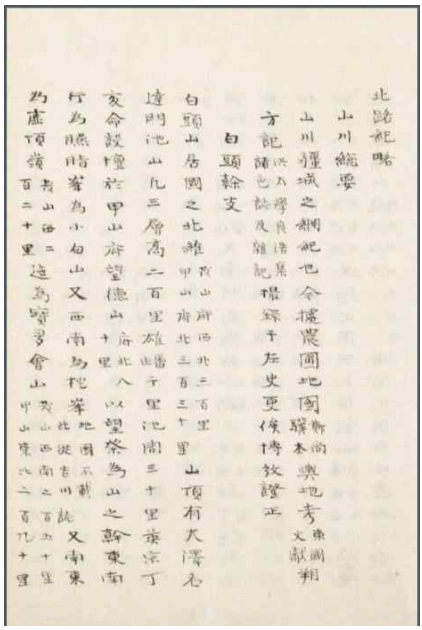
『북로기략』에는 다양한 북방지역 관련 저술이 인용되었으며, 정윤용은 여러 곳에서 이러한 인용서를 직접 밝히기도 하였다. 19세기 북방 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이 지역과 관련된 많은 저술이 나왔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정윤용은『북로기략』에서 북방 관련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뒷받침하기도 하였음을 살펴보았다. 한편으로 이러한 서술은 그동안 북방 관련 자료들이 누적되었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정윤용은 회령 부사가 된 정원용을 따라 함경도로 와 특별한 공무가 있지 않았기에 함경도의 여러 지역을 둘러볼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기존에 알려졌던 것과 달라진 함경도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었다. 정윤용은 자신의 견문을 바탕으로 북방 관련 정보를 사실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자 하였고, 이에『북로기략』에는 기존의 자료와는 다른 북방의 변화된 실상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고찰하였다.

정윤용이 함경도 지역으로 간 것은 회령 부사인 정원용을 따른 것이었다. 이 당시 정원용 또한 이 지역을 둘러보고『北行隨錄』이라는 저술을 남겼다.『북로기략』과『북행수록』은 같은 시기 같은 지역을 돌아보고 지은 저술이고 두 사람이 매우 친밀한 관계였으며, 서로의 처지가 달랐기에 두 저술의 비교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시기 다양한 북방 관련 저술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북로기략』의 의의가 더 선명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이에 관한 연구는 본고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였기에 추후의 연구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54) 정윤용은 이와 더불어 태조와 선대의 사적과 함경도 지역의 왕조 관련 유적을 자세히 기록하였는데 이도 함경도의 豊沛之鄕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하여 이 지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附錄



北路紀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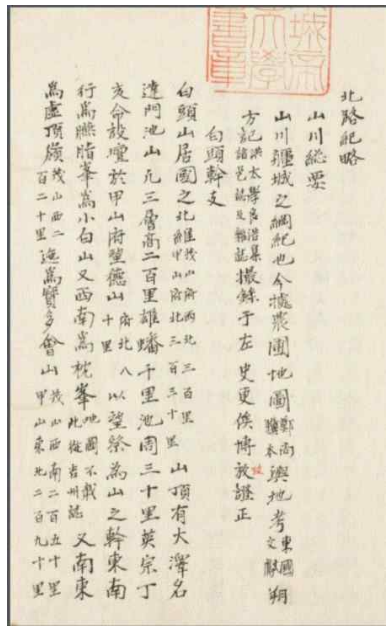
山川總要

山川疆域之綱紀也今據農圃地圖輿地考東國輿地勝覽諸邑誌及雜記撮錄于左史更俟博攷證正

白頭幹支

白頭山居國之北雄蟠甲山府北三百三十里山頂有大澤名達門池山凡三層高二百里雄蟠千里池周三十里英宗丁亥命設壇於甲山府望德山府北八十里以望祭爲山之幹東南行爲臕脂峯爲小白山又西南爲枕峯地圖不載從吉州誌又南東爲虛頂嶺茂山西南二百五十里又迤爲寶多會山茂山西南二百五十里甲山東北二百九十里迤爲雲嶺至于頭里山南迤西轉又迤而行南折而至于黃土嶺一本作黃上嶺甲山東南二百五十里端川西北二百五十里迤爲天守嶺一作天秀端川北東南百里南迤西轉爲厚峙嶺一作厚峙甲山北青北百里北折而行爲大白山三峯高與衆北百里又迤而行至于赴戰嶺高與北百里又迤而南折爲白岳高與北東南迤西轉而行爲黃草嶺一作草黃高與北百里又南折爲劍山一作上劍永興北西百里定平西百里又迤而西轉至于馬乳嶺一作踰馬永興北西

규장각『북로기략』-〈奎11415〉



北路紀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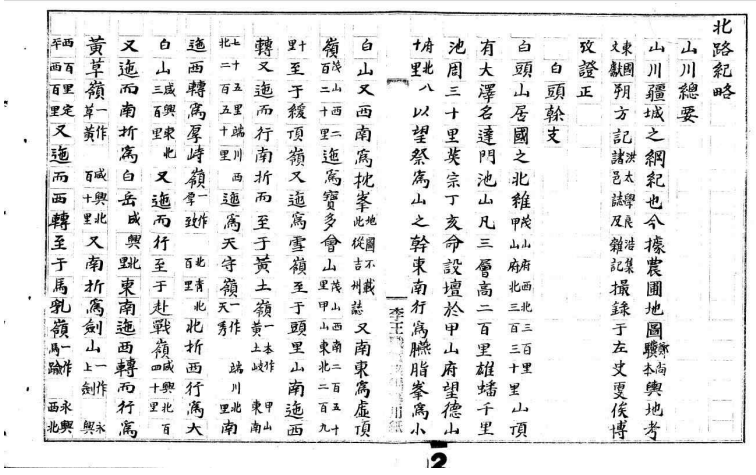
山川總要

山川疆域之綱紀也今據農圃地圖輿地考東國輿地勝覽諸邑誌及雜記撮錄于左史更俟博攷證正

白頭幹支

白頭山居國之北雄蟠甲山府北三百三十里山頂有大澤名達門池山凡三層高二百里雄蟠千里池周三十里英宗丁亥命設壇於甲山府望德山府北八十里以望祭爲山之幹東南行爲臕脂峯爲小白山又西南爲枕峯地圖不載從吉州誌又南東爲虛頂嶺茂山西南二百五十里又迤爲寶多會山茂山西南二百五十里甲山東北二百九十里

규장각『북로기략』-古4790-35



北路紀略

山川總要

山川疆域之綱紀也今據農圃地圖輿地考東國輿地勝覽諸邑誌及雜記撮錄于左史更俟博攷證正

白頭幹支

白頭山居國之北雄蟠甲山府北三百三十里山頂有大澤名達門池山凡三層高二百里雄蟠千里池周三十里英宗丁亥命設壇於甲山府望德山府北八十里以望祭爲山之幹東南行爲臕脂峯爲小白山又西南爲枕峯地圖不載從吉州誌又南東爲虛頂嶺茂山西南二百五十里又迤爲寶多會山茂山西南二百五十里甲山東北二百九十里至于穫頂嶺又迤爲雲嶺至于頭里山南迤西轉又迤而行南折而至于黃土嶺一本作黃上嶺甲山東南二百五十里端川西北二百五十里迤爲天守嶺一作天秀端川北東南百里南迤西轉爲厚峙嶺一作厚峙甲山北青北百里北折而行爲大白山三峯高與衆北百里又迤而行至于赴戰嶺高與北百里又迤而南折爲白岳高與北東南迤西轉而行爲黃草嶺一作草黃高與北百里又南折爲劍山一作上劍永興北西百里定平西百里又迤而西轉至于馬乳嶺一作踰馬永興北西

장서각 소장『북로기략』-〈K2-4512〉

▮ 참고문헌

李建昌,『明美堂集』, 韓國文集叢刊, 349, 2005.
李端夏,『彰烈祠志』, 미국 버클리대 동아시아도서관 소장.
李瀷,『星湖全集』, 韓國文集叢刊, 198, 1997.
丁若鏞,『經世遺表』,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鄭元容,『經山集』, 韓國文集叢刊, 399, 2002,
鄭元容,『北行隨錄』, 규장각 소장.
鄭元容,『經山北征錄』, 연세대 소장.
鄭允容,『北路紀略』, 규장각 소장; 장서각 소장.
鄭允容.『北路紀略』, 아세아문화사, 1974.
洪良浩,『耳溪集』, 韓國文集叢刊, 241, 2000.

강석화,『조선 후기 함경도와 북방영토의식』, 경세원, 2000, 1-313면.
_____,「조선후기 함경도 지역민의 국가의식」,『진단학보』136, 진단학회, 2021, 135-160면.
고승희,『조선후기 함경도 상업 연구』, 국학자료원, 2003, 1-313면.
윤호진, 박윤미,「정윤용의『심의고증』에 관한 연구」,『아시아민족조형학보』14, 아시아민족조형학회, 2014, 17-37면.
장존무,「북로기략(北路紀略)』의 작자와 저작시기」,『동방학지』18, 연세대 국학연구원, 1978, 229-231면.
鄭元容, 허경진・구지현 옮김,『국역 경산일록』, 1-3, 보고사, 2009.
韓國學中央硏究院,『藏書閣圖書韓國本解題. 2:地理類』,「北路紀略」, 2005, 194-197면.
홍양호, 홍의영, 이범윤・김노규 著, 손성필・오세옥・이정욱 譯,『조선 후기의 북방지리서 北塞記略, 北關紀事, 北輿要選』, 한국고전번역원, 2018, 1-456면.

고려대 해외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korea.ac.kr/)
『朝鮮王朝實錄』, (http://sillok.history.go.kr/)
『韓國文集叢刊』, 한국고전번역원DB(http://db.itkc.or.kr)

【Abstract】

A study of Jeong Yun-yong's『Bukro-giryak』*

Kwon, Eun-Ji**

Jeong Yun-yong is well known as the author of『字類註釋』, but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other than that. This paper examines the composition and content of Jeong Yoon-yong's『北路紀略』. And based on this, we examine narrative characteristics revealed in『北路紀略』.『北路紀略』was written by Jeong Yun-yong in the Hamgyeong-do region between 1829 and 1830, and has been mentioned several times as important northern data. However, no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is for more than 40 years since one research result came out.

This paper felt a sense of problem here and first examined the composition and contents of『北路紀略』. Narrative characteristics revealed here were considered by dividing them into three categories: 1) raise awareness of the Hamgyeong-do region 2) use a variety of data to express one's opinion 3) a record of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North Hamgyong Province.

『北路紀略』compared to other northern-related writings, the amount and content are abundant, so it can be said that it is very valuable among northern-related writings in the late Joseon Dynasty.

Keywords:『Bukro-giryak』, Jeong Yun-yong, Gyeong-jip, Su-am, Hamgyeong-do, Bukgwan.

접수일: 2022.03.22. ‖ 심사일: 2022.04.13. ‖ 게재확정일: 2022.05.19.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1S1A5B5A17048145).

** Lecturer, Dept. of Chinese Classics, Korea Univ.